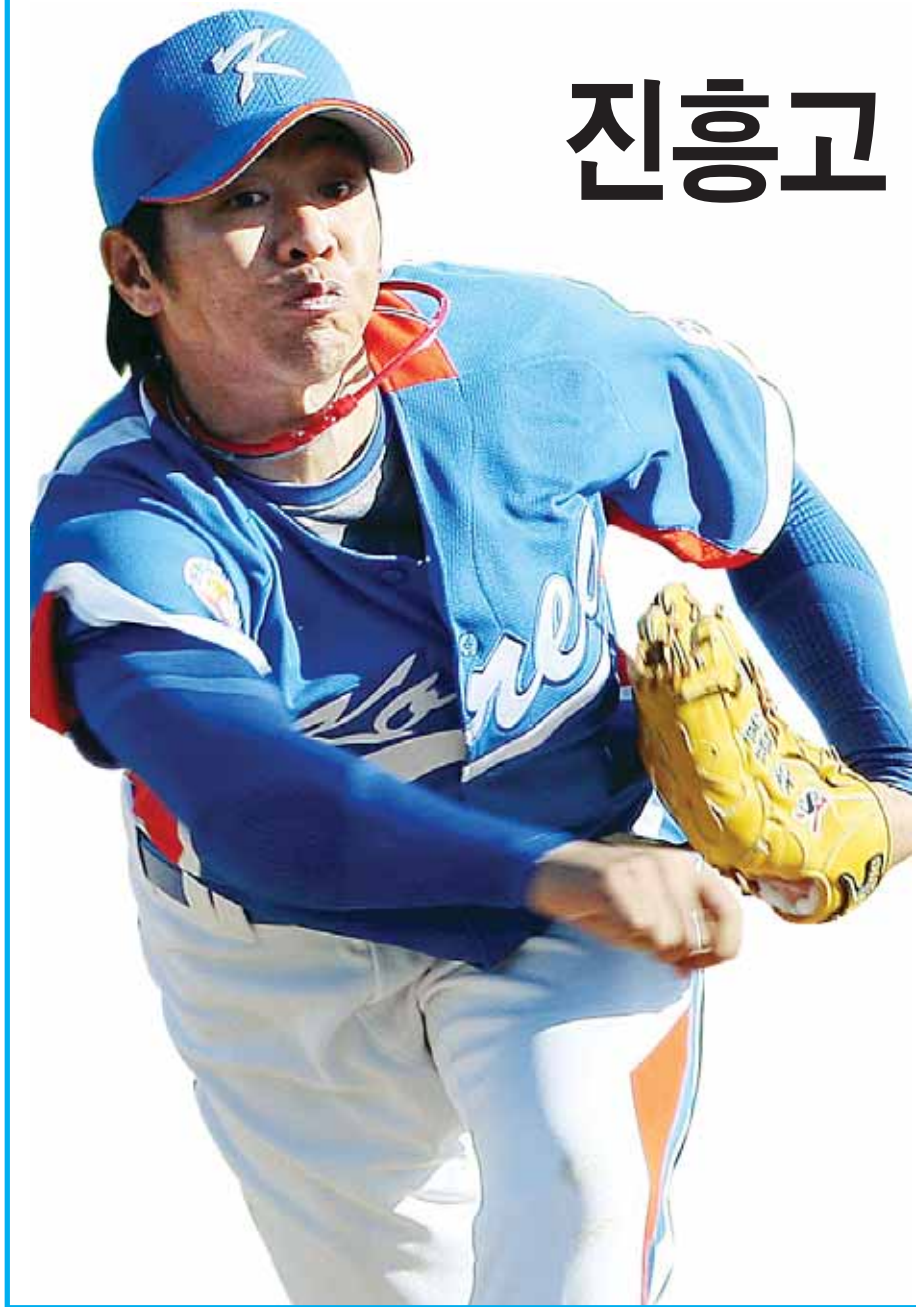


# 진흥고 출신 임창용 빅리그서 '뱀직구' 뿌린다

### 시카고 컵스 40인 로스터에 포함... 한국인 14번째 빅리거

### 1995년 해태 데뷔 후 日 거쳐 미국행... 최고 마무리 도전



광주출신 임창용(37)이 프로데뷔 19시즌째 만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빅리그'에 입성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 구단은 4일(이하 현지시간) 임창용을 40인 로스터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시카고 컵스 산하 트리플A 팀인 아이오와에서 뛰어난 임창용은 9월 확대 엔트리 가 시행된 뒤 두 차례 발표된 추가 합류 선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메이저리그 승격이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컵스는 4일 투수 마이클 보우든을 지명할당 조치하고 임창용을 빅리그로 불러올렸다.

광주 흥흥중·고를 졸업하고 1995년 KIA의 전신인 해태에 입단한 그는 해태에서 4시즌, 삼성에서 9시즌을 뛰면서 104승 66패와 168세이브, 평균자책점 3.25를 올려 국내 최정상급의 사이드암 투수로 군림했다. 이어 일본에서 5년(2008~2012)을 활약한 임창용은 일본에서 뛰던 시절 변화무쌍한

직구를 앞세운 호투로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을 얻었다. 임창용은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2002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미국행을 타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기대에 훨씬 못 미친 65만달러라는 임찰금액 탓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스스로 포기했다가 결국 우리 나이 서른여덟에 빅리그 진출 꿈을 이뤘다. 임창용의 가세로 현역 한국인 메이저리거는 추신수(신시내티 레즈),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과 함께 세 명으로 늘었다. 임창용이 등판하면 1994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시작으로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르는 14번째 한국인 선수가 된다. 또 임창용은 이상훈, 구대성, 박찬호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미국·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로 이름을 올린다. 김병현(레노)도 메이저리거를 거쳐 2011년 일본 야쿠르트 골드이글스에 입단했지만 부상 등으

로 1군에서는 한 경기도 치르지 못했다. 오르손 사이드암 투수인 임창용은 컵스에서 일본 야쿠르트 소속일 때 등번호였던 12번을 단다. 임창용은 메이저리그 승격과 함께 이날 오후 홈 구장인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등판 대기에 들어갔으나 투구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컵스는 4-7로 뒤지던 7회말 대거 4득점, 8-7로 역전한 후 8회 페드로 스트롬, 9회 케빈 그레그를 차례로 등판시켜 경기를 마무리했다. 8회말 1점을 추가한 컵스는 9-7로 승리했다. 해태에서 데뷔해 삼성을 거쳐 2007년까지 한국에서 뛰던 임창용은 13년간 104승 66패, 168세이브를 올렸다. 2008년 야쿠르트와 계약하고 해외에 진출한 그는 데뷔해부터 특유의 '뱀 직구'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미스터 제로' 등의 애칭을 얻었다. 2009년 역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팬 선정 올스타에 뽑힌 임창용은 야쿠르트에서 5년간 11승13패128세이브, 평균자책점 2.09라는 화려한 기록을 세웠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일본에서 오른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후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해 말 컵스와 스플리 계약(메이저리그에 있을 때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대우 조건이 다른 계약)을 하고 산하 마이너리그팀에서 재활을 겸한 본격적인 실전 등판을 해왔다. 임창용은 트리플 A(아이오와 컵스) 11경기에 등판, 11.1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0.79를 기록하는 등 마이너리그 21차례 등판서 평균자책점 1.61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겼다. 특히 마이너리그에서 22.1이닝을 던지는 동안 단 한 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아 메이저리거로서도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볼펜이 불안했던 컵스 구단으로서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던 임창용의 가세로 뒷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임창용이 빅리그에 올라올에 따라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와의 맞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컵스는 함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신시내티와 적지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10일부터 3연전을 치른다. 임창용이 이번 3연전에서 등판한다면 역대 16번째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타 대결이 성사된다. /연합뉴스

## 류현진 무리했나 허리통증 호소 등판 연기



### 매팅리 감독 "큰 부상 아니다"... 추신수와 맞대결 무산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허리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선발 등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와의 맞대결도 무산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 채널인 ESPN은 5일(이하 현지시간) 톰 매팅리 다저스 감독의 말을 인용해 류현진이 허리통증 탓에 등판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류현진은 5일에서 7일로 한 차례 등판이 연기된 이래 다시 한 번 등판 일정이 바뀌었다. 류현진은 당초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가 열리는 5일 마운드에 오르기로 했으나 다저스가 새로 영입한 에딘손 볼케스를 대신 투입하기로 하자 7일로 한 차례 등판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시즌 두 번째로 추신수와 투타 대결을 선보일 것으로 보였으나 허리 통증 탓에 이마저도 없던 일이 됐다. 7일에는 류현진 대신 왼손 투수 크리스 카푸아노가 마운드에 선다. /연합뉴스

이 같은 소식은 앞서 다저스를 담당하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켄 거너 기자가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7일 예정된 류현진 등판 경기에 크리스 카푸아노가 대신 출전한다"고 전함에 따라 미리 알려졌다. 당시까지는 등판 연기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매팅리 감독은 허리문제라고 설명했다. 매팅리 감독은 "허리가 아프지만 다행히 길게 갈 부상이 아니라 큰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늘 그래 왔듯이 조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류현진이 11~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등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2회말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후속 야시엘 푸이그의 안타 때 슬라이딩으로 홈을 밟다 허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지난 4일 볼펜 피칭을 하면서도 허리에 뻣뻣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나달 US오픈 4강

라피엘 나달(2위·스페인)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8강전에서 토미 로보레도(22위·스페인)를 꺾고 4강전에 진출했다. 나달은 4강에서 리사리 가스케(9위·프랑스)와 맞붙는다. /연합뉴스

## 한국, 日에 0대10 콜드게임 패 '굴욕'

###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한국이 제26회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일본에 무기력한 경기 끝에 완패했다. 정윤진(덕수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벌어진 2라운드 1차전에서 공수에서 완전히 밀린 끝에 0-10, 7회 콜드게임 패배를 당했다. B조 3위로 2패를 안고 올라온 한국은 조별리그와 2라운드 합산 성적 3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2라운드 합산 성적 3패를 기록한 이날 대승으로 합산 성적 3승을 올렸다. 이날 일본전 포함 2라운드 세 경기에서 전승을 거둬 결승에 오르려왔던 한국의 꿈은 초반 무참히 깨졌다. 한국은 1회초 1사 만루기회에서 심우준(경기고)·안준영(부산고)·이상 KT 지명)이 연속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선취점 기회를 놓쳤다. 경기초반 기선을 제압한 일본은 요

시다 유토의 2타점 적시타, 임지섭의 폭투로 3점을 더 보태고 5-0으로 점수를 벌렸다. 1일 쿠바와의 경기에서 삼진 16개를 뽑아 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원할 강속구 투수 임지섭은 그러나 이날 제구 난조와 일본 타자들의 정교한 스윙을 이겨내지 못하고 1.2이닝 만에 5점을 주고 무너져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2회부터 한주성(덕수고·두산 1차 지명), 황영국(청주고·한화 1차 지명), 안규현(덕수고·삼성 1차 지명), 이수민(상원고·삼성 1차 지명) 등을 불펜을 모두 투입했으나 일본 타자들의 매서운 방망이를 견디지 못했다. 한국 타선은 일본 투수진에게서 산발 5안타에 그친 반면 일본 타선은 12안타를 몰아치며 한국 마운드를 두들겼다. 한국은 6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베네수엘라와 2라운드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76일만의 연승 모처럼 웃음꽃



### '호랑이 킬러' 삼성 맞아 나지완·김주형 시원한 홈런포

### '무관심 세러모니' 장난... 당황한 김주형 보고 웃음 바다

머쓱했던 홈런타자와 웃음보 터진 덕아웃. 76일 만의 연승에 성공한 4일 KIA 덕아웃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이 열렸던 이날, KIA는 '호랑이 킬러'로 소문이 자자한 윤성환을 상대로 삼성전 3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 시즌 4승12패의 저조한 열세였지만 시원하게 터진 홈런 두방으로 그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지난 주말 NC와의 경기에서 나란히 장외

홈런을 쏘아올렸던 85 동갑내기 나지완과 김주형이 승리의 주인공이었다. 앞선 NC전에서는 팀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홈런을 치고도 못지 못했던 두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기본 총계 홈런 세러모니를 즐겼다. '형님' 서재응의 장난기가 더해지면서 덕아웃엔 웃음보가 터졌다. 3-0으로 앞선 5회 나지완이 먼저 손맛을 봤다. 나지완은 2사 2·3루에서 중월 3점포를 쏘아올리며 '호랑이 킬러' 윤성환을 무너뜨

렸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던 덕아웃에 여유를 선물한 짜릿한 홈런이었다. 6회에는 승부에 썩을 바는 김주형의 홈런이 나왔다. 김주형은 2사에서 바뀐 투수 김현우를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만들며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덕아웃에도 웃음꽃이 폈다. '무관심 세러모니'에 덕아웃이 웃음 바다가 되기도 했다. 홈런을 치고 당당히 홈으로 들어오던 김주형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선수들 때문에 잠시 당황했다. 으레 홈런 타자가 들어오면 선수들이 도열해 맞아주곤 하지만 선동열 감독과 김정수 투수 코치의 하이파이브가 끝이었다. 서재응의 '무관심 세러모니' 제언에 장난

기가 발동한 선수들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홈런타자를 보고 덕아웃에는 웃음보가 터졌다. 이내 선수들은 김주형에게 달려가 축하 인사를 건네며 기쁨을 나눴다. 김주형은 "선수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생각해서 같이 웃었다"며 "8월에 많이 부진했었다. 나쁜 볼에 자꾸 손이 나가고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좋았을 때 영성을 보면서 연구를 했다. 타이밍에 변화를 줬다.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웃었다. 시원한 한방으로 뱀뱀할크와 윤성환을 잡으며 삼성 악몽에서 벗어난 KIA가 고춧가루 부대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